

# 다산포럼

김정남



얼마 전에 지리산을 다녀왔다. 금방 갔다 왔어도 지리산은 또 가고 싶어지는 산이다. 가서 파묻히다 오고 싶은 산이다. 지리산은 가기 전에 설레고, 가면 그 속에 파묻히고 싶고, 다녀오면 힘들었지만 가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산이다.

내가 지리산을 찾은 것은 이인노(李仁老)처럼 이상향이라는 청학동을 찾아서가 아니고, 무릉이 예라고 읊었던 남평(南平)의 풍류를 흥내 내기 위함도 아니다. 망해가는 세상에서 글 읽는 사람 되기 어렵다던 황매천(黃梅泉)을 흠모해서도 아니다.

다만 나는 가끔 세상의 잡담(雜談)을 떠나고 싶다. 사람을 떠나 사람의 일을 잊고 싶다. 그러나 그러기가 어디 쉬운가. 또 그럴 만한 곳이 마땅치도 않다. 있다면 바다 건너 외딴섬이나 지리산 정도가 고작이 아닐까 싶다. 3개 도(道) 5개 군(郡), 15개 면(面)에 걸쳐 있는 산의 덩치가 2~3일 사람을 끌어줄 만한 산이다.

더구나 지금은 신록이 짙어가는 계절인데다, 풀과 나무와 하늘과 바람과 한 가지로 쉬쉬하고, 노래하고 싶은 계절이다. 전후

좌우 안전(眼前)이 온통 신록뿐인 속에서 나는 무념무상, 무장무예, 더 없는 유열과 평화로 느끼는 것이다. 그러한 행복을 가질 수 있는 여행이 내게는 지리산 종주다. 나는 해마다 신록의 계절이 오면 지리산 종주산행에 따라나서곤 한다. 두 해 전에는 연하전에서 폭우를 만나 종주를 단념해야 했고, 지난해에는 무슨 일이 있어 그 회회를 놓쳤다. 노고단 산장에서 1박을 하고 새벽에 출발하여 세석산장에서 자고 천왕봉을 거쳐 내려오는 2박3일의 종주산행은 내게 언제나 버차다.

노고단 산장에서 나는 그 옛적 지리산 호랑이 한태식(咸泰式)이 유배지와도 같은 피아골 산장에서 내려와 연곡사 부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주선해 준 집에 짐을 풀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짧은 날, 지리산에 들어와 산을 지켰고, 죽는 날까지 지

리산에서 살고 싶어했던 그의 하산(下山)을 축하해 주어야 할 일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다.

예전에 우리는 노고단에서 천왕봉까지의 능선길이 45km, 1백 리 산길로 알고 다녔다. 종주 능선 백릿길은 언제나 우리를 뽀뽀하게 했다. 공단이 들어서고 난 뒤, 그 길은 36km, 29km로 점점 줄더니 지금은 25.5km가 되었다. 그동안 길을 새로 내거나, 지름길을 다듬어 실측한 수치라 하니 믿을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20여km를 빼앗긴 느낌이다.

천이라는 이름이 생긴 내력은 들어보지 못했다. 거기는 샘물이 있는 습지로 산 안개가 깊은 곳기에 붙여졌을 것이라 짐작할 뿐이다. 그러나 연하봉이라는 이름은 70년대 초반 구례산악회 연하반에서 지리산 능선길을 개척할 때, 이 지역에 이르자 갑자기 농무가 끼어 오도가도 못하게 되었는데, 이튿날 안개가 걷히고 난 뒤 얼굴을 드러낸 아름다운 봉우리를 보고 연하봉이라 이름붙였다는 얘기를 들었다.

천왕봉은 멀리서 볼 때 뿔뿔이 신비롭다. 그곳에 이르러 거기까지 올라온 내가 대견스럽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기분도 조금은 든다. 본시 사진찍기를 즐겨하지 않지만 몇 년만인데다, 내 생전에 몇 번이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싶어 독사진으로 찍었다.

봄·여름·가을·겨울, 그 어느 때나 좋은 산행이 있을까마는, 내게는 신록속의 지리산 산행이 가장 즐겁고 행복하다. 신록 속의 지리산을 바라보면 괴한들의 '5월'이 생각난다. 거기에 맞서서 나는 이렇게 곳으로 외치는 것이다.

"신록 속의 지리산을 걸으면 나는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 내 나이를 세어 무엇하리. 나는 지금 지리산 속에 있다." <언론인·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나이는 세어 무엇하리

종주 길은 언제나 쫓기듯이 바쁘다. 반야봉을 뻗히 쳐다보면서도 거기 올라가 볼 새가 없다. 반야봉 아래 있다는 암자, 묘향대에 가본다 가본다 하면서도 여태 가보지 못했다. '반야봉의 낙조', '백소령의 달' 같은 낭만도 즐길 여유가 없다. 운때가 맞아서 '노고단의 운해'를 볼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세석 칠쪽'은 옛날의 장관을 잃은 지 오래다.

지리산 봉우리와 골짜기마다 그 붙여진 이름이야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지만, 나는 연하(煙霞)라는 이름을 그 중 좋아한다. 연하천과 연하봉이 있는데, 연하

## 시설

### 실망스런 검찰총장·국세청장 인사

신임 검찰총장에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 국세청장에 백용호 공경거래위원장이 각각 내정됐다. 하지만, 이번 인사를 바라보는 광주·전남 지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이는 물론 이번 인사에서도 호남 인사가 철저하게 배제된 데 따른 실망감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 탐관오리사를 통한 국민화합 도모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이나 국세청장 중 한 자리는 호남인사가 낙점될 것으로 기대한 것도 사실이다. 아쉽게도 '흑시나'가 '역시나'로 끝날 셈이다.

그러나 지역민의 실망감은 꼭 호남인사의 배제에 대한 서운함 때문만은 아니다. 이번 인사가 여론은 물론 여당 내에서조차 좋지 않게 요구받은 전면적인 인사쇄신과는 다소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천 내정자는 검찰 내 대표적인 공안 퐁이다. 백 내정자는 '이 대통령의 경제 과의선생'이라 불릴 정도로 이 대통령의 직계 경제참모이다. 공안 퐁이 지속

과 이 대통령 친정체제 확립에 역점을 둔 점이 확연히 드러난다. 과연 이들이 권력의 입김과 정치적 의풍에 맞서 공명정대한 법질서와 세정을 확립할 수 있을지 미답지 않다는 얘기가.

이번 인사가 여러모로 파격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우선 두 내정자는 언론 하마평에 전혀 거론되지 않던 '외외의 인물'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검찰과 국세청에 개혁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칠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지역적 선택'도 눈에 띈다. 4대 권력기관 중 2곳이 이 날 총칭된 출신으로 채워진 것이다.

지금처럼 나라가 혼돈을 겪고 있는 시기에 법질서 유지를 책임지는 검찰총장과 국가 세정의 책임자인 국세청장이 할 일이 무엇인가는 새삼 물을 필요도 없다. 무엇보다 권력의 눈치를 살피고 않고 정당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검찰과 국세청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 시민 우롱한 도청별관 농성 해제 '해프닝'

최근 옛 전남도청 별관에서 1년째 농성을 벌여온 5월단체들이 농성해제를 풀었다. 하지만 여전히 도청별관 농성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번엔 5월단체가 아닌 시민단체 회원들이 나섰다.

사연은 이렇다. 별관에서 농성을 벌여온 5·18 유족회, 5·18부상자회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10인 대책위원회'의 약속을 받고 시도민대책위에 5·18단체를 대신해 박광대 광주시장, 광주 지역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10인 대책위원회' 등과 협상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런데 5월 단체 회원들이 농성장을 빠져나가자마자 시도민대책위원회가 농성현장에 들어와 별관 문제가 완전 타결될 때까지 머물겠다고 주장한 것이다.

5월단체의 농성해제로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의 결실물인 별관 문제가 일대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믿었던 우리는 철저히 우롱당했다는 기분을 지을 수 없다. 요란하게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농성해제를 선언해놓고 '별관문제 타결' 운운하며 다시 농성을 벌이다니 기가 막힐 뿐이다. 더욱이 농성장 철거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도민대책위가 농성장을 '집수'하게 한 것은 소를 벌었다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농성 해산 선언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기 위한 명분 축적용이라는 얘기가.

시도민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오해가 억울하다면 당장 농성을 풀어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10인대책위원회'와 함께 별관문제를 위임받은 만큼 더 이상의 돌출행위는 삼가해야 한다. 시도민대책위원회는 이미 별관 1, 2층을 뚫어 타발식 입구인 '오월의 문'을 건립하는 절충안을 내놓은 상태이지 않은가. 지금은 농성이라는 물리적 카드보다는 10인 대책위원회 등과 원만한 협상을 도출해내는 데 주력할 때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NGO 칼럼

하방수



얼마 전 또 일간지에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해 정부로부터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전국적으로 150만 명을 넘어섰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았다. 기사에는 이들 중 절반은 독거노인 등 1인 가구 형태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실제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노인과 장애인, 모자·부자가구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60.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 속에서 학교 교

인을 극복할 수 있는 심리치료 교육과정과 폭력예방, 성교육, 약물 예방교육 및 자연 체험활동, 문화유적 탐방을 통한 사회교육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도 마련돼 있다.

특히 6주 동안 숙식 제공은 물론 맥지 위기청소년교육센터와 광주시 중장기 청소년쉼터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이러한 비영리 사회단체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후원이라고 생

### 위기청소년에게 사랑이 희망이다

육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한 '위기청소년'에게 따뜻한 사랑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정의 파괴로 인해 가출한 청소년과 주위 사람으로부터 '경계의 대상'이 되었던 정신지체장애인이나 성매매 피해 청소년 등 사회적으로 냉대받고 있는 위기의 청소년들에게 '도시 속 참사랑 학교'와 같은 사랑과 보호의 쉼터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평소 필자가 생각했던 희망의 동지가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이라는 사단법인체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학교 밖 위기 청소년들에게 기초 학력 보충을 통해 학력 인정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인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도시 속 참사랑학교는 또 심리적 요

각하며, 이러한 것들이 뒷받침돼야 비로소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비영리 사회단체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은 가정과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쉼터가 되기 때문이다.

위기의 청소년들이 청소년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떳떳하게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은 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봉사를 실천하고 희생을 주저하지 않는 분들이 있기에, 이 사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행정처장 ·도시속참사랑학교 교장》

### 비리 고위층 '형집행정지' 신중한 판단을

정치인과 경제인, 고위 관료 출신 비리 사범들이 교도소에 들어가는걸 TV를 통해 보는 국민은 씁쓸하기만 하다. 그들이 국민의 혈세를 빼돌렸거나 부도덕하게 횡령하거나, 기업의 분식회계로 수백 억대를 빼돌린 후 기업을 망하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처음에는 일말배계 엄단의 의지로 교도소에 집어넣은 비리 악덕 정치꾼들이 시간만 조금 지나면 승판관으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그를 통해 적당히 빠져나오고 있으니 국민들은 더더욱 견디기 힘든 허탈감을 맞는다. 그래서 검찰에서 이런 상습적 형집행정지 신청을 막아보고자 그 기준을 강화한 결로 있다. 그런데도 밀쳐져 온 전이라는 식으로 신청을 하고 있더니 소위 사회 지도층에 있었다는 자들의 도덕적 불감증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

이들은 일단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또다시 신청

한다고 한다. 그게 온 종계든지, 또는 각종 연줄과 백그라운드와 정치적 인맥을 동원해 효과를 발휘하기를 기대하면서 그런다는 것이다. 그래서 풀려나면 좋고 아니면 말 고라니 그나마 이런 연줄도 백그라운드도 없는 힘없는 일반 국민들, 범죄자들만 형평에 어긋나게 감방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유력인사들의 형집행정지는 국민의 관심사일 뿐더러 의사나 기타 전문가들의 소견을 듣기는 하겠지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신문과 방송에서 유명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의 형집행정지 소식은 맨날 들어보지만 일반 범죄자들의 형집행정지는 거의 못 들어봤다. 이는 유력인사들의 연줄과 자금력, 로비력을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게 사법계에 관한다면 우리의 법률적 평등은 깨지고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은 커지기만 할 것이다.

▲이성열·나주시 산정동

## 기고

민점기



요즘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들 가운데 자기 소속을 알리는 홍보 문안을 세련되게 부착하고 다니는 자동차를 많이 본다. 하지만 이러한 자동차들의 교통질서위반은 더욱 발생한다. 그런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약자이거나 이제 막 어른들로부터 질서를 배우는 어린이나 학생들이기 때문이다.

몇 년 전 인기에 상영된 국내영화의 "너나 잘하세요"란 대사 한마디가 오랫동안 유행한 적이 있었다. 미모의 여자 배우가 워선으로 가득 찬 교묘인

사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나는 오지랖도 넓게 아주머니에게 "금방 저 교회 버스가 큰 데로 번에서 불법유턴을 하던데 알 게 모르게 여러 사람이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지 않더라도 4차로 도로에서 불법유턴을 하게 되면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길에 나는 한마디 더 보았다. "전도활동도 중요하지만 산 사람을 교통사고로 이 땅을 떠나게 해서 안 되겠지요? 금방 운전하신 분에게 그러지 말라고

### 너나 잘하세요?

에게 매우 냉소적인 표정으로 뻔뻔한 한마디였다. 그런데 우리 일상 가운데 교통질서만큼 위선과 탈법이 난무하는 공간도 찾아보기 어렵다. 너나 할 것 없이 자동차 운전만 하게 되면 인격이고 교양쯤은 한 발 뒤에 두고 하는 것 같다.

어떤 교장선생님이 운전을 하는데 옆 차선에 자동차가 끼어들었다고 한다. 갑자기 끼어든 차에 놀라 나머지 교장선생님이 입에 담기 어려운 욕을 했다. 함께 탄 선생님도 "교장 선생님도 그런 욕을 하시니까?"라고 묻자 "교장선생, 내가 지금 교장이요? 운전하는 사람이이지" 하면서 쓴웃음을 지었다는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며칠 전, 집 근처를 산책하는데 교회 이름이 커다랗게 새겨진 버스 한 대가 불법유턴을 한 후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너무 위험하단 생각에 한참을 쳐다보니 머리가 희끗희끗한 초로의 신사분들이 내리고 있었다. 마침 길 건너편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조그만 쪽지 하나를 건네며 "우리 교회에 오세요" 하며 내게 전도활동을 하는 게 아닌가?

전하세요" 물론 나의 당부를 전해들은 운전자가 "너나 잘하세요"한들 아니 전하는 것만 못할 수도 있다.

교통질서를 잘 지킨다는 것은 자신의 인격이며 타인에게 배려하는 사랑의 실천이다. 더군다나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종교단체나 교육기관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이점을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한다. 교회나 단체 이름이 새겨진 버스가 불법유턴을 하는 현장을 목격하면 바로 해당 소속이나 단체에 주의를 당부하는 전화를 하고 그런 전도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리고 싶다.

상호가 새겨진 자동차들부터 교통질서를 잘 지키며 모범적인 운전을 하고 거리를 달리게 해줘야 그 자체가 움직이는 훌륭한 광고물이 될 수 있다. 겉모습이 아름다운 자동차보다 더 큰 아름다운 자동차는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을 실천하려는 마음으로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자동차이다.

오늘은 정말로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아름다운 자동차를 보고 싶다.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지서장》

### 학교·공공기관에 우리꽃 화단 조성 했으면

우리가 애창곡으로 부르는 노래중 "손대면 독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봉선화라 부르리~"라는 곡이 있다. 누구나 흥겹게 부르는 유행가 가사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봉선화는 우리 꽃일까?

안타깝게도 아니다. 산과 들에서 자주 볼 수 있어 우리 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그건 우리 꽃이 아니며, 그렇게 우리 꽃인 듯 하면서 실제 외국산 종자인 것은 그뿐 아니라 나팔꽃, 백일홍, 달맞이꽃도 모두 볼 건너온 외래종이다.

그래서 농촌이든 도시든 학교나 공공서,

공공기관,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우리나라 꽃 화단 조성'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우리꽃 화단 조성 가능한 공간을 소유한 건물, 기관, 마당, 학교, 아파트, 군부대에 모두 가 다함께 참여해 우리 꽃 화단을 조성해 보자. 우리 꽃은 미선나무, 산수국, 섬기린초, 붓꽃, 삼백리향, 구절초 같은 게 있고 화단 조성에 쓰일만한 것은 약 30여 종 정도 된다고 한다. 점차 사라져가는 우리 꽃을 지키는 한편 생활주변의 자투리 공간을 아름다운 꽃밭으로 탈바꿈시켜 나가면 좋겠다.

▲류용국·광주시 남구 서1동

## 無等鼓

요즘 나라 밖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가 심상치 않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이란 제10대 대선에서 강경 보수파인 마무드 아바디네자드 현 대통령이 압도적 표차로 당선, 재선 고지를 밟으면서 터진 시위가 10일째 계속되고 있다. 아바디네자드에 맞섰던 개혁파 미르 호세인 무사비 전 총리 지지자들이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만류에도 연일 시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 하메네이가 직접 나서 자제를 강조했지만 20일에는 최악의 유혈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날 시위대와 군경의 충돌로 최소 13명이 숨지는 등 시위 발생 이후 20여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극은 순탄치 않은 이란 현대사의 연장선이다. 오늘날 이란이 내부 진통을 겪는 것은 석유 때문이다.

2차대전 후 민족주의자 총리인 모사데그란은 이전까지 영국국들이 갖고 있던 석유 채굴권의 국유화를 단행했다. 석유개발권을 탐내던 미국은 1953

년 CIA의 '에이팩스' 작전(Operation Ajax)을 통해 이란 정부를 전복시키고 친미파인 팔레비 왕을 권좌에 복귀시킨다.

그러나 민족자립과 반서구적 이슬람 근본주의를 내세운 아야톨라 호메이니를 중심으로 촉발된 1979년의 혁명으로 팔레비 왕이 쫓겨난다. 혁명 후 30년간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만류에도 연일 시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2005년 강경보수, 반미-반이스라엘정책을 내세운 아바디네자드가 당선됐고 핵무기 개발로 미국과 맞섰다.

아바디네자드의 초강경 대미정책에 따른 경제악화로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틈을 타 서방과의 유원한 관계를 통해 '개혁파' 무사비는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이번 대선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나자 급기가 유혈사태로 번진 것이다.

이슬람 신정(神政) 체제의 이란에서 자주적인 민주국가 건설이 가능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박경정 정치부장 unipark@kwangju.co.kr



### 이란 사태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업인	
대표전화 2200-551		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222-4918	시 회 2 부	2200-692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편집 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경제 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정치 부	2200-641	체육 팀	2200-663
사회 1 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매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다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